



오늘 이 강연의 목적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혹은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성취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본질을 새겨보자는 의도보다는 종교개혁이라는 눈으로 한국교회를 보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종교개혁을 재해석해 보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를 종교개혁 정신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물론 16세기 상황을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대비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개혁’(the Reformation)의 동기와 정신이 교회 개혁과 교회 건설이라는 점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의도를 되새겨 볼 수 있다고 본다.

2.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흔히 교회의 변질 혹은 교회의 부패는 4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기독교를 그 이전과 구별하여 ‘콘스탄티적 기독교’(Constantinian Christianity)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재세례파는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교회의 변질과 국가권력과의 야합의 분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개혁의 이념은 ‘복귀’(restitutio)였고, 그 복귀란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칼빈주의 역사신학자였던 윌리엄 커닝햄은 그의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제1권 7장에서 이미 2세기에 성경적 교회관의 변질을 보여주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말하여 그 조짐으로 고위성직계급의 출현 등 3가지를 말한 바 있다. 교회역사는 흑인 영가의 가사처럼, 부흥과 쇠퇴, 개혁과 속화의 순환을 경험하였고, 교회는 그 영육의 자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루터교 학자들은 루터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여 개혁운동에서 루터의 주도적인 영향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루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개혁은 불가피했다. 그 만큼 교회는 그 본래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부패와 타락이 심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16세기 개혁이 불가피했다고 말할 때 교회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다양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의 부패였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교회지도자들이 썩었다는 뜻이고,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 부패했다는 뜻이다. 물론 중세시대의 교리적 오류니 탈선, 제도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성직자들을 비윤리를 정당화 하는 ‘겸직제도’(pluralism)나 ‘부재직임제’(absenteeism), 성직자들의 취첩을 묵인하게 해 주었던 세금제도(Concubinage fee)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모든 문제의 해결일 수 없다. 우리가 1970년대 이후 독재정권 하에서 제도나 체제와의 싸움에서 경험했지만 어떤 점에서 제도와의 싸움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것이 인간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도 또한 불의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잘 해명한 분이 「현대, 이상, 이데올로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화란의 하우스바르트(B. Goudzwaard)이다. 그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부패’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의 부패였다.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여러 실 예가 있지만 몇 가지 경우만 소개하고자 한다. 교황 보니페이스 8세(Boniface VIII, 1294-1303)는 1300년 2월 22일 새로운 세기를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소위 회년을 선포하고, 교황 칙령을 통해 “이 회년동안에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를 아무런 보류도 없이 사해준다”고 선언하였던 사람인데,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교황 관저에는 48개의 루비, 72개의 사파이어, 45개의 에머랄드, 66개의 커다란 진주들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¹⁾ 돈 만

1) 브루스 셸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277.



드는 천재로 알려진 요한 22세(1316-1334)는 각종의 징세제도를 창안하여 교회 질서를 극도로 문란 시켰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했다.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1492-1503)의 타락은 그 이전의 교황보다 더 심각했다. 그는 교회의 관행과 규율을 무시하고 극도의 타락과 방종한 생활을 살았는데, 교황이 되기 전에도 몇 사람의 정부와 3남 1녀를 두고 있었으나, 교황이 된 후에 7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

1447-1517년 어간의 교황 중 절반이 사생아를 두었고, 15세기 말 콘스탄츠교구의 경우 매년 약 1,500명의 사생아가 출산했다. 스코틀랜드의 성(性) MaTaggart는 ‘사제의 아들’(son of the priest)이란 뜻이고, MacNabb이라는 성은 ‘수도원장의 아들’(son of the abbot)이란 뜻에서 기원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는 소위 여성의 집(Frauenhausen)이라는 환락가가 있었고, 여성의 주 고객은 성직자들과 고위 관리였다. 교회의 윤리적 부패는 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16세기에는 반(反)성직주의 사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중세말기에 나온 유명한 경구“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Vita clerici est evangelium laice)는 말은 당시 성직자들의 도덕적 상태를 암시해 준다.

종교개혁기 초기 교황이었던 아드리아누스 6세(Adrianus VI, 1522-1523)는 신성로마제국의 뉘른베르크교회(1522-23)에 파견한 교황사절 프란체스코 치에레가띠 추기경에게 보낸 훈령에서 “루터 이단으로 교회가 받는 어려움의 책임은 성직자들, 특히 교황청과 그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시인했다. 이 훈령에서는 “교회 안에는 가증할만한 폐습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병폐들은 교황을 포함하여 성직자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세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직교육의 부재와 성직자의 양산이었다. 이것이 중세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적 요인이었다. 티르나겔(N. S. Tiernagel)에 의하면 16세기 초 유럽 인구 중 85%가 농민, 노동자였고, 10%가 통치 그룹 혹은 귀족이었고, 성직자가 5%에 달했다고 한다. 1500년 당시 세계 인구를 약 5억으로 추산하는데, 유럽의 인구를 1억으로 본다면 성직자 수는 무려 5백만 명에 달한다. 독일 지방 쾰른(Cologne)만 해도 무려 5,000명의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있었다. 전 독일에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숫자는 무려 1백 50만 명에 달했다. 어떤 지역은 인구 30명당 1명의 성직자가 있었다고 한다. 성직자의 과대한 배출은 성직자의 지적, 영적, 도덕적 수준을 저하시켰고, 이들을 상호 경쟁적으로 만들었을 뿐 만 아니라, 성직자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성직자의 양산은 성직자들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성직자 수의 급증은 성직자들의 혜택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어떤 성직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향유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으나, 다른 한편의 성직자들의 빈곤과 가난은 극에 달했다. 개신교의 경우도 비슷했다. 1529년 비텐베르크시의 목사들은 200굴덴(금화, Gulden)를 받다가 나중에는 300굴덴과 50부셀의 곡물을 받았으나 시골의 목사는 20굴덴에 지나지 않아 도시 목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축을 키웠다고 한다. 독일 일부지방에서는 성직자들이 극빈상태에 떨어져 중세시대처럼 성직자 거지들이 프로테스탄트교회 안에도 생겨났다.²⁾ 가난한 성직자들은 세속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가축 제조업, 직조, 제조업, 버터와 치즈 행상을 하기도 했다.

오늘 한국교회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와 문제의 소지도 따지고 보면 성직교육의 불균형과 과다한 성직자의 배출이라고 할 수 있다.³⁾ 현재한국의 성직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남한의 인구를 4천 5백만 명으로 볼 때 인구 450명 당 1명꼴의 성직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 성직자의 10%가 임지 없는 ‘비활동 인력’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스펀존도 예상 못했던 제3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합동교단의 경우, 임지 없는 목회자는 약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 오언 차드윅, 「종교개혁사」, 437.

3) 성직자들은 기독교로마제국 초기부터 일정한 면제혜택을 누렸다. 군복무와 세금은 물론 세속 법정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범법한 경우에 교회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고신의 경우 전체목회자의 10%에 해당하는 160여명의 목회자들이 새로운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성직자의 과도한 배출은 분별없는 개척교회의 난립과 교회분열, 그리고 성직자간의 과도한 경쟁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직자의 양산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제는 신학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심각한 경쟁자가 되었다. 성직자간의 빈부의 격차 또한 심각하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한 소명보다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종교 활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교회개혁이 섭생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3. 교회개혁으로서의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난 교회개혁운동을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건설은 그들의 일관된 개혁 정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더 리포메이션(The Reformation)을 ‘종교개혁’(宗教改革)이라고 번역한 일본의 용례를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교회사를 가르쳤던 호주출신 선교사 왕길지(G. Engel)는 The Reformation을 ‘교회개정사’(教會更正新史)로 번역했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적인 개혁운동(Reform)만이 아니라 영적부흥(쇄신)운동(Revival)의 성격이 있었다.⁴⁾ 교리적인 개혁이 영적 쇄신운동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념화 혹은 이데올로기화 되기 쉽고, 반대로 영적쇄신운동이 건전한 교리적 기초를 지니지 못하면 신비주의적 혹은 주관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개혁은 교리적 개혁과 영적 부흥의 성격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어쨌든 개혁자들의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들의 개혁운동은 한마디로 참된 ‘교회건설’이었다.

1) 교회건설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설교였다.

개혁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설교의 회복이었고, 이것은 새로운 교회관의 핵심이었다. 말하자면 개혁자들의 교회갱신의 핵심을 말씀의 권위회복에 두었고⁵⁾ 설교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했다. 즉 설교는 교회개혁과 교회건설의 중요한 도구였다. 청교도였던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도 동일했다. 코튼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De Regno Christi*)에서 “영국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회복함으로써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설교를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간주했다.⁶⁾ 개혁자들에게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였기에 이를 ‘성경중심’(sola scriptura)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성경의 바른 설교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으므로 개혁자들은 ‘말씀의 신실된 전파’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인식했다. 이런 점에서 캠브릿지대학의 피터 뉴만 브룩스(Peter Newman Brooks)는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목회적 성경을 띤 운동이었다.”고 했다.

칼빈은 신학자이기에 앞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중요한 문제였고, 성경외의 권위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즉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하여 성경은 하나님 인식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이 루터보다 더 철저했다. 이점은 전통(tradition)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았으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니지 못 한다”고 보아 전통을 폐기했다. 그 결과 루터교회에는 여전히 로마교적 잔재가 남아 있으나 개혁교회에는 로마교적 잔재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

4) Jeremy C. Jackson, *No other Foundation, the Church through Twenty Centuries*, Cornerston Books, 1980), 제11장 참고.

5) B. 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133, Paul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Atalanta: John Knox Press, 1981), 14.

6) 오덕교, 「청교도와 교회개혁」, 204. 코튼은 교회사를 설교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3시기로 구분하여 말했는데, 첫째 시기가 하나님 말씀만이 왕 노릇하던 초대교회 시기이며, 둘째 시기는 말씀의 암흑기였던 중세시대였고, 셋째는 말씀이 다시 부흥하여 모든 국가와 교회에서 말씀이 왕 노릇하였던 종교개혁시대라고 했다.



있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루터교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이루었고, 바로 이런 점에서 베인톤은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를 다시 개혁했다”고 말하고 “개혁(Reformed)이란 종교개혁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⁷⁾ 어쨌든 개혁자들은 성경을 강조하였고, 진실된 말씀의 증거를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식으로 삼았다.

오늘날 남아 있는 칼빈의 설교목록은 약 2,050편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 571편, 신약이 397편이다.⁸⁾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식(signum)으로 말씀과 성례를 말했는데, 이 두 가지를 참된 교회의 표식으로 말했다는 점에는 루터란과 다르지 않다. 루터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포만 강조했지만, 칼빈은 말씀의 바른 선포만이 아니라 청중도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루터란과는 달리 바른 말씀의 선포를 위해 청중은 그것이 바른 선포가 되도록 성경강해와 설교를 경청하고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선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나스도 이런 칼빈의 입장을 따랐다. 청중은 설교의 바른 선포를 위해 파수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2) 하나님 중심사상

종교개혁은 오도되고 변질된 신학과 교회로부터 성경 본래의 기독교로의 회복운동이었다. 그 근거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었다. 그 동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대신했으나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천명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사상이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황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을 했다. 이 말은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16세기 상황에서 보다 분명히 말하면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다.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사죄와 은혜의 수여자라는 당시 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바로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이 영광 받아야 할 대상일 수 없다. 말하자면 성경의 유일한 그리고 최종권위의 확인과 함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 교회개혁 운동이 가져온 신학적 성취이다. 구원관에 있어서 자의적 혹은 이교적, 율법적, 그리고 보상적 이해나 주장은 교회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에 의하면 이미 2세기를 거쳐 가면서 고위성직 계급이 출현하면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대두됨으로서 구원관의 변질을 보여주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행위로 얻어지는 공로의 결과라는 오도되고 변질된 구원관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무력화시켰다. 특히 고위 성직 계급의 출현은 교회를 급속도로 인간 중심의 계급공동체로 변질시키고 전락시켰다.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인간의 권위, 그리고 교회구조의 계급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종교적 권위주의가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교회 변질의 시작은 직분의 계급화였고, 인간중심의 고위성직 개념의 출현이었다. 즉 2세기를 거쳐 가면서 2직분론은 급속히 힘을 잃고, 3직분론이 대두되면서 교회직분의 계급화 현상이 대두했다. 커닝햄이 말했듯이 본래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인간중심의 다스림의 직분으로 오인되면서 교회는 급속히 계급 구조로 변질되었다. 교회 구조는 권력구조로 개편되었고, 성직자들은 이권에 탐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교회와 교회 구조를 세속화시켰고, 나그네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안주 공동체로 변질되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 혹은 세속화를 가져온 두 가지 근본적 원인은 첫째는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의 권력과의 야합, 곧 권력에 대한 지나친 야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었다. 오늘 한

7) 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39.

8)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295.



국에도 노회, 총회가 지나치게 권력구조로 화해졌고, 세속 정치계와 방불할 정도의 권력 구조가 엽관제도화(spoil system)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노회장, 총회장이라 하여 ‘장’이라는 교회 직분의 ‘수위성’을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중재하는 사람(moderator)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교회 조직의 불의, 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처리회의 불의하고 부당한 처리가 우리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3) 가난해 질 수 있는 교회, 부와 몰락주의

중세교회의 두 가지 큰 문제는 권력에 대한 야망과 부에 대한 욕망이었다. 이것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중세교회는 몰락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 교회의 속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원운동 일어났으나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게 되자 다시 부패하였고,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해 수도원은 그 본래적인 기강을 상실하였다. 부는 영성을 파괴하였고, 나그네 공동체를 안주공동체로 전락시켰다. 루이스 스피츠에 의하면 16세기 유럽 토지의 3분의 1은 교회의 소유이거나 교회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한다. 즉 교회는 많은 토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현금제도로 수입을 올렸고, 돈과 권력 때문에 8살, 11살짜리 아이가 추기경이 되기도 했다. 한사람이 4개 도시의 대주교직을 독점하기도 했다. 소위 ‘결직제도’와 ‘부재직임제’(absenteeism)가 정당시되고 합법화되어 성직자들의 사치와 탐욕이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양심’이라고 불린 성 버나드(St. Bernard)는 교회나 성직자가 부를 통제할 신앙적 자제력이 없으면 차라리 가난해 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당시 교회는 그런 영적 통제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터는 부(소유)는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찰스 웨슬리도 이웃을 위해 분배되지 않는 재물은 ‘소유의 본질’(nature of possession)을 상실한 것들로 규정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제 중산층이상의 교회가 되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종교 귀족들이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부의 성직자들은 정도 이상의 부를 향유하고 국민의 10% 인구만이 즐길 수 있는 골프를 치고 외제자동차도 타고 다니는 이도 있다. 교회 재산은 교회분규의 핵이 되고 있다. 성직자는 가난할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삶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르조아란 말은 원래 ‘성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특권층이란 말이다. 오늘 우리가 ‘성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비판해 왔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인 것처럼 오해하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시대의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고 그 가치관에 깊숙히 빠져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부를 통제할 영적 능력을 지니든지 아니면 소유의 본질을 상실할 위험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잠언 30장 서두의 아굴의 기도가 바로 이런 정신을 보여준다.

4) 성속 이원론의 극복

종교개혁은 기독교적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 성속(聖俗)의 이원론적 구분이 나 성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는 잘못된 가치를 바로잡아 주었다. 루터는 자신이 수도원의 맹세를 통해 눈물겹도록 감동하였다고 했지만 후일 그는 「수도원 맹세에 관하여」(De votis monasticis)라는 글을 통해 수도원적인 삶만이 고상하고 보다 거룩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람이 무슨 일에 종사하던 다 소중한 것임을 석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였다. 이 점이 그의 직업에서의 ‘소명론’(召命論)인데, 그에 의하면 모든 직업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아래로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봄으로서 모든 직업은 다 동등하게 의미를 지닌다. 칼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장은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은 세속으로부터 격리된 수도원에서의 삶이 아니다. 어찌면 세



속화될 수 있는 위험마저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악과 불의와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아곤)을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일깨워 주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종교개혁은 교리적 개혁(Reform)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에 의미를 주는 영적 부흥(Revival)의 성격이 있다. 실로 16세기 개혁은 교회와 신자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예배의식이나 제도는 신학을 반영했으므로 종교개혁 이후 예배당 양식이 달라졌고, 예배 의식이 달라졌다. 의식 중심의 성찬대가 성당 중심부에 있었으나 개혁교회 예배당에서는 강단이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성찬대는 그 밑에 두게 되었다. 말하자면 의식 중심의 중세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개편된 것이다. ‘그 개혁’이란 바로 교회의 개혁이었고, 이 개혁은 교회적 삶과 신자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5) 사회개혁

종교개혁은 교회의 신학의 갱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루터보다 칼빈의 기여가 컸다. 사실 루터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였고 기존질서(정치권력)에 대해 평행적 관계를 지녔지만 칼빈은 이 단계에서 진일보하였다. 루터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칼빈은 하나님 중심주의(Theocentric)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신관은 인간관 사회관 등 신학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트릴취(Emest Troeltsch, 1865-1923)는 “..... (칼빈주의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사회전체의 삶을 계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과 일종의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칼빈주의는 교회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고, 루터교처럼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를 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처럼 몇몇 기관을 세워 두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트릴취의 말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사회를 성속 이원론에 따라 분리하여 이분화(Dychotomy)하지도 않았고 사회와 그 제도를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제도, 조직, 직업, 직위 등 질서를 설정하였으며, 이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예속된 수종자(servants)로 표현된다. 정리해서 말하면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근거와 가능성을 두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성(聖), 속(俗)의 이원론적 구분은 개혁주의적이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성과 속의 이원론적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영역)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아야 한다. 성, 속 이원론은 영역분리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두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삶과 행동양식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종교행위를 단순히 주일예배와 이와 관련된 행위로만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며 반대로 소위 세속적 영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게 한다. 이 같은 형태는 한국적 컨텍스트로 말하면 무교(Shamanism)적이다.

둘째로, 사회, 사회구조는 절대불변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세적 세계관은 우주와 사회를 위계 체계적인 존재의 사슬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회조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불변의 구조로 보지 않았다. 사회를 절대불변의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는 타락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란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단순한 개인의 집단이 아니라 일정한 틀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또 사회란 다수의 개인들의 집합만이 아니라 ‘조직’ 혹은 ‘구조’라는 성격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조에서 오는 불의나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조직이나 세금제도, 임금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고 말할 때 인간의 집단인 ‘사회는 악하다’라고 단순히 말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사회는 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어떤 때는 개개인의 악들이 다 합해진 것보다 더 사회는 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짙었다. 사회현실에 대해 무관심했고,



문화적 소명에 대해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4. 한국교회의 문제: 성장지상주의의 문제

그 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나 우리에게는 개혁되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신앙적 혹은 교회적 삶의 제 영역 가운데 어느 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게 되면 다른 측면들은 경시되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다.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그 한 측면이 바로 수적인 ‘성장’이었다. 그래서 성장 아닌 다른 신앙적 혹은 교회적 가치들은 경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 무시되었던 한 가지가 바로 건실한 신학과 윤리적 측면들이었다. 개혁자들의 주장처럼 신학은 교회를 이끌어 가는 터이자 축이었다. 건실한 신학이 없거나, 신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한국교회는 신학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시했다. 또 ‘신학 없는 교회’ 혹은 ‘교회 없는 신학’을 추구하는 양극단이 있어 왔다. 신학 없는 교회란 건실한 신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인데, 이럴 경우 교회는 목회자 개인의 주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럴 경우 교회가 주관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더 극단으로 가면 기독교란 이름의 비기독교가 될 위험까지 있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사를 무시한다. 교회성장 만 이루면 되지 신학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또 ‘교회 없는 신학’이란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 신학운동을 의미하는데, 심지어는 칼 바르트(K. Barth)나 폴 틸리히(P. Tillich)조차도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교회 건설의 의지 없는 신학은 철학화 되거나 사변화되기 쉽고 교회와 무관한 소위 ‘학문추구’일 위험이 있다. 이런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한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도 이런 유형의 신학이다. 신학적인 미숙 또한 한국 교회의 문제로 남아 있다. 아직까지도 성전, 제단, 제물 등과 같은 용어들이 분별없이 쓰여 지고 있고, 심지어 일천번제(一天燔祭)라는 기상천외한 헌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의 일천한 신학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의식이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말이고 이를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직자들이 부패했다는 뜻이다. 중세시대의 부패는 다름 아닌 성직자들의 부패였다. 그 부패는 돈과 권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직자가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기만 하면 굉장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성직자가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만 하면, 실로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존경받게 될 것이다. 신앙적 삶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지만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는다. 교회 지도자나 성직자나 장로들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등 심리적인 것은 그만두고라도 거짓말을 하고, 음해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이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자기의 사욕을 쫓았던가?

요즘 한국교회에는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다.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는 시무하던 목사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임 압력을 받자 ‘조용한 사임’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수역에 가까운 고액이었으나 오직했으면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사임을 요구했을까? ‘상식이 통하는 교계’를 위해 우선 목사가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일부의 경우이고,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변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일상적 현실로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대승적 처신이 요구된다. 성직자에게는, 불교식 용어를 빌리면, 진정한 출가(出家)정신이 요긴한 때가 되었다.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최선의 길은 목사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무



시되거나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가 도덕적,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하고, 법을 지키고, 정도를 가고, 그리고 의로운 일은 술선해야 한다. 예컨대, 교회 지도자들이 낭비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설교하면 교회내의 그 분별없는 많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빈곤에 가까운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고, 가난과 부의 극단적 소유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려고 한 바 있다. 우리 시대의 사치와 낭비 풍조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또 교회나 교회 기관에 관여하는 지도자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사리를 제할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자 하는 소박한 의지일 것이다. 그것이 성직자들의 권위의 기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 호화로운 가운데나 박사후드가 설교자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

결론을 대신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부패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혹은 초기교회의 생활방식이었던 ‘나그네성(性)’ 혹은 ‘나그네 의식’의 상실이었다. 중세교회의 문제란 바로 나그네적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안주 집단으로 변질된 결과였다. 교회가 이 역사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할 때 세속 권력과 야합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적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한 때 막스주의자였던 폴란드 출신의 망명철학자 레쎈 콜라콥스키는 오늘의 서구사회의 세속화는 기독교가 너무 쉽게 그 고유한 가치를 포기해 버린 결과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나그네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속에 새겨준 삶의 방식이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였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적인 이민과 이동을 통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보다 나은 분향을 사모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즉 ‘안주의식’은 개혁을 불가능하게 한다. 히브리서 기자(11:13-16)는 열조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후 ‘저들은 더 낫은 분향을 사모하였다’라고 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자성(自省)운동이다.

종교개혁은 16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데오도 베자가 말했듯이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정신이 오늘 한국교회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한국교회의 반성적 성찰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